



[상세내용]

통상환경 동향 및 전망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bsong@kiep.go.kr, Tel: 3460-1208)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1. DDA 협상: 동향과 전망
2. 지역무역협정: 동향과 전망

주요 내용

▶ DDA 협상은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5월 중 농업과 NAMA간 핵심쟁점의 주고받기 성격의 협상인 '부문간협상(horizontal process)'도 개최될 예정임.

- 2008년 2월 배포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의장초안을 기초로 3~4월에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을 절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초안이 제시되어 5월 중 부문간협상(horizontal process)이 전개될 예정임.

▶ 부문간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Lamy 총장은 각료급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2008년 상반기 중 DDA협상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전망됨.

- Lamy 총장은 2008년 5월 중 각료급회의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개최여부는 불확실함.

▶ 2008년 2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건수는 199건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5건이 증가함.

- WTO에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1/4분기에 타결되었거나 발효된 협정은 중국-뉴질랜드 FTA, 싱가포르-GCC FTA 등 12건에 이르며, 미국-말레이시아 FTA 등 네 건의 FTA 협상이 신규로 개시됨.

▶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2007년 12월 멕시코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중국, 일본, GCC 국가와의 FTA 추진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1. DDA 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가. 최근 동향

■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2008년 2월에 배포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의장초안을 기초로 3~4월에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농업은 선결 쟁점으로 떠오른 민감품목의 TRQ 증량을 위한 소비량 계산방식¹⁾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DATA 6 그룹을 중심으로 주요 11개국²⁾이 소비량 계산방식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고자 비공식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 NAMA도 개도국 관세감축 계수와 신축성 수준을 놓고 의장이 제시한 다양한 sliding scale 방식³⁾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 농업과 NAMA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이 좁혀진다면 수정초안이 만들어져 5월중 농업과 NAMA간 주고받기 성격의 협상인 부문간협상(horizontal process)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은 4월 초부터 수정초안의 작성 여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주요 30개국 중심의 Room E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1) 민감품목은 세번(tariff lines)별로 지정하되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증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번별 국내 소비량 통계가 없다는 점임. 이에 따라 품목별 소비량 자료를 이용해 세번별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를 partial designation이라 함)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때 가공품의 포함 여부가 세번별 소비량 크기에 큰 영향을 주어 가공품 세번 포함 여부를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고 있음. 가공품을 포함할 경우 세번별 소비량이 감소해 수입국에 유리한 반면, 가공품을 배제할 경우 세번별 소비량이 증가해 수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2) 미국, EU, 캐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으로 현재 농업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Falconer 의장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하고 있어 일명 '의장의 친구들(Friends of the Chair)'로 불리기도 함. 한편 DATA 6는 민감품목의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토론을 이끌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를 지칭하며, 이 국가들은 동시에 주요 11개국에도 포함되어 있음.

3)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이란 개도국의 관세감축폭과 신축성간의 trade-off관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관세감축계수를 높일(낮출) 경우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수준을 낮추(높이)는 것을 의미함.

■ 서비스는 각료회의(2008년 5월로 예상) 기간에 signaling conference를 개최하여 주요 30개국의 서비스분야 수정제안(revised offers)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양허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협상 진전을 위하여 미국과 EU 주도로 각료회의 기간 중(농업과 NAMA의 부문간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5월중 각료회의 개최 예정) signal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주요 30개국이 제시한 수정제안이 논의될 예정임.

– 그러나 서비스 시장개방의 목표수준(level of ambition)과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WTO 차원의 양허 여부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규범은 2007년 11월 30일에 제시된 의장초안의 반덤핑조항에 대하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제로잉⁴⁾ 금지를 내용으로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Galmes 규범협상그룹의장은 수정안 작성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ASEAN이 제로잉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제안을 제시하면서 한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의장초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최근 Galmes 의장은 부문간협상 이전까지는 수정초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그 때까지 논의된 결과를 요약한 문서에 대한 작성 계획은 언급함.

나. DDA 협상 전망

■ DDA 협상이 2008년 상반기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농업과 NAMA에서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함.

– 첫째는 농업과 NAMA에서 수정초안이 만들어질 것인가의 여부임. 농업은 4월 초로 미루어진 Room E 회의에서 협상 진전의 선결 요건인 민감품목의 소비량 계산방식이 합의되

4) 제로잉(zeroing)은 특정 상품의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아 음(-)의 덤핑마진이 발생할 경우 이를 0(제로)으로 처리하여 전체 평균적인 덤핑마진을 높이는 관행으로 현행 의장초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음. 제로잉 관행이 WTO 규정과 불일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제로잉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음.

어야 함. 만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정초안도 자연스럽게 이 합의안에 기초해 작성될 것임. NAMA 역시 의장이 제시한 sliding scale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져야 수정초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둘째는 수정초안에 기초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과 NAMA 간 핵심쟁점의 상호 주고받기 성격의 협상인'부문간 협상(horizontal process)'으로,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몇몇 핵심쟁점을 제외한 상당수의 쟁점이 해소되어야 함.
- 만일 horizontal process에서 상당수 쟁점이 해소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다면 곧이어 각료회의가 소집되고, 남아 있는 몇몇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각료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세부원칙 타결이 시도될 것임.
- Lamy 사무총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5월중 각료회의의 소집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DDA 협상 진전속도와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 입장 차이,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08년 상반기 중 DDA 협상의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 농업에서 민감품목의 소비량 계산방식은 그 자체로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최근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EU, 브라질이 복잡한 기술적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평균적·개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예상 밖의 타협안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음.

- 특히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미국, EU, 브라질 등이 주축이 되어 개략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낼 경우 실제 Room E 협상에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농업과 NAMA에서 수정초안이 만들어져도 두 번째 단계인 부문간협상에서 농업과 NAMA의 이해관계 조정은 쉽지 않음.

- 농업에서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문제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 등 여전히 많은 핵심쟁점이 남아 있으며, NAMA에서도 개도국 관세감축계수를 제외하더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예: 부문별자유화(sectoral approach))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이러한 농업과 NAMA의 핵심쟁점을 놓고, 주요국간의 주고받기 협상은 협상 내(within) 그리고 협상간(between) 쟁점별로 세밀한 이해득실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타결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요국간 빅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DDA의 가시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을 구속할 수 있는 DDA 협상 연내 타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됨.

■ 결국 라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DDA 협상집행부가 DDA 협상 성과와 함께 추진력(momentum)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DDA 협상은 2008년 상반기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상반기 임기종료를 앞둔 라미 총장은 DDA 협상의 성과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의 수정초안 작성을 독려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5월 중 최소한 실무고위급의(SOM) 부문간협상(horizontal process)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각료급이 아닌 SOM 수준에서 농업과 NAMA간 핵심 쟁점의 주고받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됨.

- 결국 라미 사무총장은 5월 중 각료급회의를 소집하여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많은 쟁점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각료급회의의 소집은 자칫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 온 DDA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DDA 협상의 추진력 유지를 위한 해법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부문간협상 결과가 라미 사무총장의 각료급회의 소집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RTA 추진 동향

■ 2008년 2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99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50건, 개도국간 특혜협정 (Preferential Arrangement)이 22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4건임.

- 지난 2007년 10월 통계(194건)에 비해 신규 추가된 FTA는 이집트-터키 FTA(2007. 3. 1 발효, Enabling Clause), 일본-태국 FTA(2007. 11. 1 발효, GATT 제24조), EC-몬테네그로 FTA (2008. 1. 1 발효, GATT 제24조), 파키스탄-중국 FTA(2007. 7. 1 발효, GATT 제24조) 등 4건이며, 신규 추가된 서비스 협정은 일본-태국 EIA(2007. 11. 1 발효, GATS 제5조)임.⁵⁾
- 또한 2007년 10월 통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분류되었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은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재분류됨.

표 1.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2008. 2. 10 현재)

GATT/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구 분	회원국확대 (Accessions)	신규 RTA체결 (New RTAs)	총계 (Total)
FTA (GATT 제24조)	2	111	113
CU (GATT 제24조)	6	8	14
개도국간 협정 (Enabling Clause)	1	21	22
서비스협정 (GATS 제5조)	3	47	50
총계(Total)	12	187	199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표 2. 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2008. 2 현재)

	FTAC U	서비스 협정	개도국 간 협정	활동 중지	총계	누계
1995	16	6	1	14	9	100
2000	14		2	2	14	169
2001	12	7	1		20	189
2002	14	4	1	1	18	207
2003	14	3	1	3	15	222
2004	23	7		67	-37	185
2005	10	8		1	17	202
2006	11	8			19	221
2007.10	6	2		35	-27	194
2008. 2	3	1	1		5	199
총계 ('48~08.2)	305	60	23	189	199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5) 2007년 11월, 한-ASEAN FTA서비스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WTO에 통보되지 않음.

■ 한편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이외 다수의 FTA가 지난해 말부터 금년 1/4분기 동안 추가적으로 타결되었거나 새로 협상이 개시되었는바, 주요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세계 RTA 신규 타결/발효 및 개시 동향(2008년 1/4분기)

협상타결/발효	개시
MERCOSUR-이스라엘 FTA (08.1 서명)	
중국-뉴질랜드 FTA (08.1 타결)	
페루-캐나다 FTA (08.1 타결)	
캐나다-EFTA FTA (08.1 타결)	한국-멕시코 FTA 협상 (07.12 개시)
상가포르-GCC FTA (08.1 타결)	미국-말레이시아 FTA 협상 (08.1 재개)
파나마-과테말라 FTA(08.2 서명)	중국-페루 FTA 협상 (08.1 개시)
파나마-칠레 FTA (08.3 발효)	캐나다-CARICOM FTA 협상 (08.2 개시)
GCC 공동시장 (08.1.1 발효)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08.1 발효)	
SADC FTA (08.1.1 발효)	
EU ACPI5개국에 시장개방 승인(08.1.1 발효)	
대만-엘살바도르 FTA(08.3.1 발효)	

■ 우선 EU는 2008년 1월 1일부터 ACP* 15개국에 대한 관세철폐를 승인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해 민감품목인 쌀과 설탕을 제외한 모든 수입쿼터와 관세를 면제하게 되며, ACP 국가들은 EU상품에 대해 25년에 걸쳐 자국시장을 최소한 80%까지 개방하게 됨.

*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78개국으로, 과거 유럽의 식민지국들로 구성됨.

■ 또한 걸프만협력회의(GCC)* 6개국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동시장을 출범시켰으며, 또한 2010년까지 미 달러화에 고정된 화폐통합을 추진기로 함.

- GCC는 공동성명서를 통해“걸프 공동시장(Gulf Common Market)은 생산 효율성 향상과 자원의 적정이용을 도모하고 국제경제포럼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함.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간에 체결된 관세동맹형태의 경제협력체.

■ 그 외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도 2008년 1월 1일자로 FTA를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뉴질랜드 간 FTA 협상 역시

2008년 1월에 타결되었으며, 지난 2007년 1월에 개시되었던 싱가포르·GCC FTA 협상은 총 네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1월 31일 공식 타결됨.

*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아프리카 14개국임.

– 싱가포르·GCC FTA는 상품,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세 등을 포함하며, GCC가 중동지역 밖에서 타결한 첫 FTA로서의 의미를 지님.

■ 한편 한국과 멕시코는 2007년 12월 초 멕시코시티에서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하여, 양국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자, 정부조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 또한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FTA 협상을 1년 만인 2008년 1월 재개함.

○ 미국·말레이시아 간 FTA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수민족인 중국계 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말레이시아계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입찰 우선권을 주는 것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음.

나. RTA 추진 전망

■ 세계 각국이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발전 및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의 수단으로 FTA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지난해 11월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싱가포르의 싱 수상은 양국간 FTA 협상을 당초 타결 목표시점보다 6개월 앞당긴 2008년 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바, 2008년 중에 일본·싱가포르 간 FTA가 타결될 전망이다.

○ 또한 캐나다와 요르단 간 FTA 협상이 4월 중에 요르단 암만에서 개시되어 상품양허, 원산지기준, 통관절차, 무역원

활화, 독점 및 국영기업, 분쟁해결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양국간 FTA 협상의 2009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 대륙에 걸친 FTA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미국·콜롬비아 FTA가 비준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과 콜롬비아의 노동 및 인권문제가 개선된다면 7월 이전에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서비스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예산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함. 콜롬비아는 노동과 인권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국은 EU와의 FTA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이 제시한 상품양허안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양국이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EU와의 FTA 협상이 순연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원산지규정 및 자동차 표준 문제 등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8년 5월 예정된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FTA 협상을 종결지를 예정이지만, 양국이 상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협상이 지연될 전망이다. KIEP